

출장 결과 보고서

기 간: 2026. 04. 27. ~ 2026. 04. 30.

출장지: 중국(상해, 소주, 항주)

출장자: 이세원, 이병재, 민혜경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중국 상해, 소주, 항주

2. 출장기간: 2026. 04. 27. (월) ~ 2026. 04. 30. (목)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PM)	이세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병재
국토연구원	연구원	민혜경

4. 출장목적

□ 중국의 대표 AI 거점도시인 상해, 항주, 소주의 산학연 AI 생태계 현장 조사

- 중국의 대표적인 AI 거점도시(상하이, 항저우 등)를 방문해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지능형 관제 시스템 등 실제 AI 및 로봇 기술의 실증 및 도시 운영 현황 확인
- 자율주행, 로봇 배송 등 혁신적인 AI 기술이 실제 도시 공간에 적용될 때 발생하는 갈등 및 해결 사례를 집중 검토하여, K-AI시티 정책 추진에 필요한 네거티브 규제 방안 참조

□ 한·중 공동 AI시티 세미나 개최

- 시안교통리버풀대학교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AI 기술 수용성에 따른 도시 공간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양국 간의 AI시티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5. 방문 기관 개요

- (아폴로 파크, Baidu) 로봇택시(Baidu Apollo RT6 등) 자율주행 시연 및 클라우드 통합제어 플랫폼 등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는 실증 기관
- (브레인시티, alibaba) 중국의 대표 사례인 AI 기반의 실시간 교통제어 등 지능형 관제 시스템과 시티 브레인 3.0 운영 현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방문
- (시안교통리버풀대학교) 스마트시티에서 AI시티로의 전환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AI 기술 수용성에 따른 도시공간 변화 및 정책적 시사점 논의하기 위해 방문
- (SIP AI Park) 국가 ‘차세대 AI혁신발전시험구’의 핵심 구역으로 지정, 현재 AI 관련 기업 1,800개 이상이 집적한 클러스터로 관련 공공정책 조사(기존 계획의 베이양 AI 타운의 방문 거부로 인해 변경)

II. 출장일정

일정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4월 27일 (월)	인천	상해	(오전) (08:25) 인천 출발 (오전) (9:40) 상하이 도착	
	상해		(오전) 참여기관 간 업무협의 - 조사 역할 분담 및 주요 검토 내용 논의 (오후) 아폴로 파크(바이두 운영) - Baidu Apollo RT6 등 로봇택시 실증 - 자율주행 관제 플랫폼 운영방안 (오후) 항주 이동(2시간 30분~3시간 소요)	국토연, 영국C&P, 엘티메트릭 王芸(왕운) 사원 외 테스트베드(운영) 담당자
4월 28일 (화)	항주		(오전) 항주 브레인시티센터(알리바바 운영) - 항주 시티브레인 센터 운영현황 및 지능형 관제 시스템 및 담당자 미팅	陈艳(진연) 사원 외 부서 책임자·팀장
	소주		(오후) 소주 이동(2시간 30분~3시간 소요)	
4월 29일 (수)	소주		(오전, 오후) 시안교통리버풀대 - 스마트시티 전환, 스마트 모빌리티, AI시티 등 공동 세미나 개최	시안교통리버풀대 도시계획과 이주현 교수, 학과 교수, 학생 등
	상해		(오후) 상해 이동(2시간 30분~3시간 소요)	
4월 30일 (목)	소주		(오전) SIP AI Park - AI 타운의 기업 및 대학 입주, 활동 등 - AI 타운의 공간구상	SIP AI Park Qian ChengYang (부대표)
	상해	인천	(13:40) 항주 출발 (16:45) 인천 도착	

Ⅲ. 수행사항

1. 4/27일(Day 1): 출장계획 검토 회의

□ 회의 개요

- (時/所) '26. 04. 27. (월) 10:00 (GMT+7) / 상해 푸둥공항 내
- (참석자)

구분	소속	이름	직위
한국	국토연구원	이세원	부연구위원(PM)
		이병재	연구위원
		민혜경	연구위원
	영국C&P	박찬호	대표
		서정기	이사
	엘티메트릭	강지훈	부장

□ 주요 내용

- 출장 일정 확인 및 주요 내용 검토
 - 아폴로파크, 시티브레인센터 위치 및 일정 확인 및 회의내용 점검
 - 기관별 질의 사항, 조사 내용, 한국(방문) 측의 답변 등에 대해 조율
- 시안교통리버풀대학교와의 공동세미나 준비사항 정리
 - 세미나 발제자료 수정 및 보완
 - 베이양 AI 타운을 접촉한 대학(시안교통리버풀대)과 현지 루트를 통해 방문 가능 여부 재확인, 결국 불가능하여 SIP AI Park로 변경
 - SIP AI Park 기관 방문 추가에 따른 일정 점검 및 내용 정리



연구진 회의

2. 4/27일(Day 1): 아폴로 파크(Baidu)

□ 회의 개요

- (時/所) '26. 04. 27. (화) 14:00 / 상해 아폴로파크
- (참석자)

구분	소속	이름	직위
한국	국토연구원	이세원	부연구위원(PM)
		이병재	연구위원
		민혜경	연구원
	영국C&P	박찬호	대표
		서정기	이사
	엘티메트릭	강지훈	부장
중국	아폴로파크	왕운	사원

□ 주요 내용

- 아폴로 프로젝트(회사 바이두) 프로젝트 개요
 - 2013년 바이두에서 자율주행 프로젝트 공식 착수, 아폴로라는 명칭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우주선처럼 세계 최초로 로보택시 시대를 열겠다는 목적으로 시행
 - 2015년 인터넷 국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기술을 선보이며 주목받음
 - (2018년) 홍콩·마카오 등 주요 지역을 잇는 최초의 자율주행 대규모 시연 성공
 - (2020년) 자율주행 플랫폼 탑재 자가용 생산 및 아폴로 관련 공식 명칭 및 인증 획득
 - 차량 실증 기지로 상해 아폴로파크 개소
 - 최근 홍콩에서 자율주행 면허(특허)를 취득하였으며, 향후 현지 시연 및 운행을 앞두고 있으며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에서도 시운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함
- 차량 세대별(1~6세대) 기술 진화 과정 조사
 - (1~3세대, 인프라 및 시야 확보 단계) BMW 3시리즈 기반 협작 모델로 시작
 - 1~3세대는 시야 확보율이 80% 수준에 머물렀으나, 3세대부터 360 전방위 시야 확보가 가능해지며 본격적인 도로 시운행 돌입
 - (4세대, 센서 본격화 및 현실화) 라이다, 초음파 레이더 등 본격 탑재하며 자율주행의 현실 정확

도를 대폭 향상

- (5세대, 상용화 및 안전성 확보) 5G 통신 등급 업그레이드를 통해 데이터 지연을 줄이고 안전성을 극대화하였으며 향후 일반 대중이 주로 타는 주력 모델
- (6세대, 완전 기능화 모델, 아폴로RT6) 완전 지능화된 AI가 탑재되어 고도화된 음성 대화 기능 지원, 목적지를 말하면 AI 스스로 단거리, 장거리 여부를 판단하고 경로를 추측하여 주행(중국어, 영어 지원)

○ 자율주행 기술력 및 인프라 스펙 현황

- (센서 및 스캐닝 시스템) 3중 라이다 및 초음파 레이더* 등을 융합하여 차량 주변 30m 간격 내의 모든 물체를 정밀 탐지
 - * AI 로봇의 시야 화면을 통해 실시간 객체 인식이 가능하며, 초음파 레이더의 경우 이론상 최대 3km까지 확보 가능한 고성능 센서 구성
- (유지보수 및 캘리브레이션룸) 차량 고장, 센서 오차 발생 시, 정비실로 입고하면 특수한 방의 AI 감지 코드(QR코드 유사)를 통해 차량 특정 부위의 이상을 즉각적으로 진단
- (맵핑 및 서비스 연동) 중국 내 대중적인 지도 서비스인 바이두 지도·고덕지도 등 바이두 자체 네비게이션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동앱을 활용한 자동 주차 기능까지 연계됨
- (보안) 해킹 가능성까지 철저히 고려하여 데이터 완전성 시스템을 다중 설계함
- (운행 속도 기준) 전시된 버스·셔틀은 최고 60~70km/h 수준이며,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100~120km/h까지 가능

○ 무인택시 상용화 현황 및 당면 과제

- (자율주행 기술적 한계) 1차적으로 AI 및 로봇 알고리즘이 모든 주행환경을 계산하여 안전을 책임지고, 만약 AI가 예측 불가능한 오류로 제어 불능 상태일 경우, 차 내에 탑재된 별도의 더 높은 상위 안전 백업 시스템이 가동되어 2중으로 안전 보장이 필요함
- (정식 영업 및 비즈니스 모델) 우한에서 로보택시 운행은 앱으로 예약하여 요금을 지불하는 정식 사업 운영(유료 영업) 단계이며 바이두는 무인택시, 디디는 무인 배송 중심으로 영역 구축 중이므로 이를 전역으로 확대하는 과정 필요
- 도시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누적 테스트 거리가 최소 3억km를 돌파하여 안전성이 검증될 것으로 판단
- (법적 규제 및 사고 처리 방식) 현재 교통법상, 무인 자율주행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이

므로 AI 사고 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

- 우한에서는 사고 발생 시, 정교한 법적 기준보다 현장의 차량 카메라, 블랙박스, CCTV 등을 통해 과실을 판단함
- 사고가 가는 실제 상황을 경험하며 법과 제도를 실시간으로 조정해가는 선실증 후규제 방식을 취함
- (현장의 문제점) 무인 택시가 도로에서 갑자기 멈출 경우, 극심한 정체와 불편을 유발하기도 하며 심각한 인명 사고 발생 시에는 기존 교통법을 준용하여 처리 중이나 여전히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임
- (대중화 시기 전망) 우한에서 실제 수익 사업을 실행하기는 했으나, 무인기술을 수용하는 계층과 기술적 불안정성·불편함으로 반대는 계층이 맞서고 있어 시장 안착 여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상해아폴로파크

3. 4/28일(Day 2): 항주 브레인시티센터

□ 회의 개요

- (時/所) '26. 04. 28. (화) 10:00 / 항주 브레인시티센터
- (참석자)

구분	소속	이름	직위
한국	국토연구원	이세원	부연구위원(PM)
		이병재	연구위원
		민혜경	연구원
	영국C&P	박찬호	대표
		서정기	이사
	엘티메트릭	강지훈	부장
중국	브레인시티 센터	진연	사원(부서 책임자)

□ 주요 내용

- 시티브레인 추진 배경 및 발전 연혁
 - (프로젝트 시작) 2016년 극심한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전격 도입하여 프로젝트* 착수
 - * 초창기에는 교통 정체가 가장 심각한 5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였으며 AI 기반 신호등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균 도로 정체 시간을 20분 단축하는 성과 거둠
 - 시진핑 주석의 AI기술을 활용해 도시를 지능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시에 따라 항저우 자체 클라우드 서버를 기반으로 도시 지능화 프로젝트 가속화
 - (플랫폼 개발 및 고도화, '18년~'19년) 본격적인 AI 기반 도시관리 플랫폼* 개발 완료하였으며 알리바바·알리클라우드의 기술을 전면 도입하면서 공식 명칭을 시티브레인으로 확정
 - * 스마트폰 하나로 도시 전체 시스템을 관리한다는 목표 수립
 - (코로나19 대응을 통한 시스템 안착, '20년) COVID-19 확산 시기, 과학적 방역 관리*를 위해 항저우시가 시스템 운영을 위탁
 - *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의 위치 추적(반경 1.5km 이내 파악) 및 18일 격리 관리 시스템 가동
 - (기능 다각화 및 업그레이드, '21년~'23년) 항저우만의 독창적인 행정·서비스 발굴 위해 AI 활용 경진대회 개최, 행정, 노인복지, 쓰레기 관리 등 시스템 영역 확장하였으며 '23년 인구 유동량

정밀 관리 기능이 추가되었고 6~7년 축적되어 보편적인 도시 인프라로 정착

○ 시티브레인 핵심 기능 및 데이터 행정체계 조사

- 전체 성(省) 단위의 방대한 데이터를 알리클라우드 기술 기반으로 통합하여, 정부-민간 간 합작 형태로 운영 (등록 사용자 2,000만 명,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규모)
- (통합관제 및 실시간 모니터링) 항저우 전역에 27만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도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인프라 보수 수준을 파악
- 각 부처의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유하여 일 진행상황, 민원 등록 및 해결 흐름을 실시간 추적
- 방대한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 공무원의 최종 결재 및 의사결정 능력을 대폭 향상
- (민원 및 재난 관리 원스톱 시스템) 민원 접수 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소관 부서에 지시를 내려 해결을 지원
- 화재, 수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 등 관계 부서와 실시간 연결되어 현장에서 바로 결재 및 지령을 내릴 수 있는 체계 구축
- 구급차(앰블런스) 이동 시 교통 신호 연동 및 병원·의사 사전 대기 시스템을 가동하여 환자 도착 즉시 대응 가능

○ 정밀 그리드(Grid) 관리: 아파트, 기업, 인구 등 방식 조사

- (아파트 거주민 관리) 정부 차원의 관리 편의성을 위해 아파트 건물을 위험성, 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3가지 색상(적·황·녹)으로 분류하여 관리
- 임시 거주민(유동 인구) 역시 붉은색, 파란색, 녹색 등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
- 노인 안전판 기능: 독거노인이 3일 동안 외출하지 않거나 움직임이 없을 경우, 시스템에 자동으로 알림(이벤트)이 발생하여 고독사 등 예방
- (입주 기업 데이터 관리) 구청 시스템에 입주 기업의 데이터(수출액, 자금 유동성, 운영 정황 등)가 모두 연계됨
- 기업들은 약 20가지 핵심 지표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하며, 작년 동기 대비 분석 보고서가 자동으로 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전송됨
- 구 내 기업 현황 및 매출액 운영 상태를 실시간 파악하고, 1등부터 100등까지의 우수 기업을 집중 관리하며 대출 및 공사대금 지급 시기 조율 등 필요한 행정·금융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
- (모바일앱 기반의 대민 행정 및 공동체 활성화) 개인·대민업무를 일원화하여 과거 여러 부서의 이견으로 파편화되어 일주일 이상 걸리던 출생신고, 입학, 공과금 납부, 보험료 처리 등 57개 행

정 업무를 시티브레인 앱 하나로 통합 및 일원화 (알리페이 등과 연동)

- 과거 개별 부서 앱에 흩어져 있어 시민들이 잘 몰랐던 158가지 무료 혜택 서비스를 한곳에 통합하여 대민 서비스 활용성 극대화
- 모바일앱 사용이 서툰 고령층을 위해, 타 지역에 있거나 다루기 쉬운 다른 가족 구성원이 대신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가정당 '가족 코드'를 부여
- (15분 생활권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 체계) 지도상에서 15분 거리 내에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선택 및 제공
- 지역 내 자원봉사 수요(위치, 필요 인원, 대상 유형-일반/학생/공산당 등, 필요 시간 등)를 실시간 매칭. 일주일간 실제 참석 인원도 데이터로 확인
- 자원봉사 이력은 시스템에 기록되어 공무원 승진 심사, 학생 취업 스펙 등에 반영되며, '젊어서 봉사한 데이터로 늙어서 복지 혜택을 받는' 선순환 데이터 구조 확립하였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서관, 실버타운 등 복지시설 공급계획을 수립함
-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앱을 통해 국제 정세부터 단지 내 이슈 사항까지 실시간 공유
- 인구 관리 데이터(0~3세, 15세 이상, 노인 분포 및 질병 이력)를 기반으로 이웃 간 소통 유도
- 아이 하원 돕기, 강아지 산책, 출장 시 돌봄 요청 등이 앱 내에서 실시간 소통되어 과거보다 이웃 간 관계가 화목해지는 순기능 발생

○ 민간 산업 혁신 및 기술 생태계 현황

- (스마트 무인 호텔 운영) 정부가 1억 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안면인식·AI 음성 인터페이스를 도입한 신축 호텔들이 급증(숙박료 약 60만원 선의 고가 호텔 포함 항저우 내 다수 도입)
- 투숙객이 도착하면 객실문 자동 열리며, 로봇이 음성명령을 인식하고 엘리베이터·문과 통신하며 물건을 자동 배송함(단, 안면인식이 등록된 내국인 중심으로 완벽히 구동)
- (물류 및 제조 혁신) 사물인터넷 기반의 입체식 무인 물류창고 활성화 중이며 높이 36m·폭 200m 규모에 박스 900만개를 수용하는 대형 창고를 단 2명의 인력으로 관리
- (전통 재래시장의 AI 도입) 재래시장 저울에 AI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량 사기를 방지하고 공정 거래 환경 조성
- 상인들이 시장 내 빌딩(최대 7층 규모의 라이브 방송 기지) 등에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며 고객과 실시간 소통하는 형태로 문화 변화
- (안면인식 및 금융 데이터) 알리바바와 앤트그룹(Ant Group)이 강력한 안면인식 및 금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금융 및 통신 대기업(카카오뱅크 주요 주주, KT 기술 협력 등)에

기술적 영향력을 행사함

- (AI 및 플랫폼 경쟁) 알리바바는 자체 칩 생산 및 거대언어모델(LLM)인 '통이첸원(Tongyi Qianwen)'을 개발하여 쇼핑, 지도, 배달 앱에 통합함
- (AI 관련 주요 기업) 4족 보행 로봇 등으로 유명한 유니콘 기업 '유니트리(Unitree)'를 비롯한 6대 유니콘 기업, 그리고 '지리 자동차(Geely)' 등이 항저우 기술 생태계의 축을 담당하고 있음



시티브레인 센터

4. 4/29일(Day 3): 소주 시안교통리버풀대학교

□ 회의 개요

- (時/所) `26. 04. 29. (수) 10:00 (GMT+7) / 소주 시안교통리버풀대
- (참석자)

구분	소속	이름	직위
한국	국토연구원	이세원	부연구위원(PM)
		이병재	연구위원
		민혜경	연구원
	영국C&P	박찬호	대표
		서정기	이사
	엘티메트릭	강지훈	부장
중국	시안교통 리버풀대	이주현	교수
		김정우	교수
		정형철	교수
		Bing Chen	교수
		김창희	교수
		조형래	교수
		백민주	교수
		Sophie sturup	교수
		Kon Kim	교수
		김준식	교수

□ 주요 내용

- 국가 주도 AI 및 로봇 공학 전략 조사
 - (정책의 융합) 초기 '중국제조 2025(2015)'의 제조업 트랙과 '차세대 AI 계획(2017)'의 AI 트랙이 병렬로 진행되다가, 2023년 이후 '체화된 AI 시대'로 수렴하며 총 17개의 핵심 국가 정책 추진
 - (제15차 5개년 계획(2026)의 전환점) AI 언급 횟수가 이전 계획(6회) 대비 52회로 급증했으며, 사상 최초로 단독 AI 챕터 구성
 - (핵심 목표) '체화된 AI'를 8대 전략 산업 중 하나로 공식 지정하였으며, 정책 문서상 최초로 범용 인공지능(AGI) 탐색을 명시하고, 2027년까지 스마트 단말기 도입률 70%, 2030년까지 90% 달성을 목표로 설정

○ 4단계 다층적 거버넌스와 유연한 규제 체계 조사

- 단일화된 포괄적인 AI 통합법은 아직 통과 전이나, 대신 4단계의 계층화된 아키텍처(국가 법률, 행정 규칙, 표준, 지역 시범 규정)를 통해 유연하게 적용
- (애자일(Agile) 규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알고리즘 추천(2022), 딥페이크(2023), 생성형 AI(2023), 안면 인식(2025), AI 콘텐츠 라벨링(2025) 등 특정 활용 사례에 맞춘 규정을 신속하게 도입
- (로봇 특화 거버넌스 도입) 2026년 제정된 휴머노이드 및 체화된 AI 표준 시스템(HEIS)은 12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여 만든 최초의 로봇 전용 6대 기둥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 도시 단위 테스트베드 및 실증 구역 인프라 현황

- 18개 이상의 도시에서 총 54개의 지자체 시범 플랫폼과 25개의 휴머노이드/체화된 AI 훈련장이 운영 중
- (4대 핵심 클러스터) 징진지(베이징 중심), 창장삼각주(상하이 중심), 중서부(우한 등), 웨강아오 대만구(선전 중심)에 실증 역량의 80% 이상이 집중
- 도시들은 직접 경쟁하기보다 도메인별로 특화됨. 예를 들어 베이징/상하이는 휴머노이드와 파운데이션 모델, 우한은 자율주행, 선전은 자율주행차 법률 및 로봇 친화 구역, 항저우는 공공행정 AI 영역에 특화

○ 주요 산업 부문별 상용화 및 성과 지표 조사

- (자율주행차) 도시 전역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상하이는 5,238km의 가장 넓은 테스트망을 갖췄고, 우한은 1,000대 이상의 무인 로봇택시(바이두 아폴로 고)를 운영 중
- (휴머노이드 로봇) 상하이의 치린 및 베이징의 텐궁 등 대규모 훈련장이 인프라 역할을 하며, 수백 대의 이기종 로봇이 수만 시간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학습 중
- (산업용 로봇) 2024년 중국의 산업용 로봇 설치량은 295,000대로 전 세계 배치량의 54%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 기록
- (스마트 시티와 노인 돌봄) 항저우는 '시티 브레인 3.0'에 자체 진화형 AI(DeepSeek-R1)를 통합하여 교통 체증을 대폭 개선
- 3억 1천만 명(2024년 기준)에 달하는 60세 이상 고령층 인구 대응을 위해 로봇 기반 돌봄을 도시 필수 인프라로 도입

○ 한계 및 향후 과제

- (포괄적 AI 법률 부재) 여전히 부처별 가이드라인과 지자체 샌드박스 규정에 의존하는 규제 환경
- (자율주행 및 로봇 규제의 파편화) 지역별 자율주행 병렬 체제로 인해 사고 책임 소재가 도시마다 다르며, 산업용 로봇 외에 사고 책임이나 보험 등에 관한 휴머노이드 전용 법적 장치가 아직 미흡
- (지리적 불균형) 주요 혁신 시범 구역과 첨단 로봇 훈련 센터가 주로 동부 연안 대도시에 치중되어 있어 지역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Policies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the implementation of K-AI City Byoungjae Lee leebj@krihs.re.kr  KRIH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XJTLU RESEARCH REVIEW · 2017-2026 Inside China's AI and Robotics Policy: National Policies and Strategy, Regulatory Power, and the Rise of City Testbeds and Demonstration Zones Hyungchul Chung April 29, 2026 Urban Planning and Design Xi'an Jiaotong-Liverpool University
	
시안교통리버풀대학교 공동 세미나	

5. 4/30일(Day 4): 소주 SIP AI Park

□ 회의 개요

- (時/所) `26. 04. 30. (목) 09:00 (GMT+7) / 소주 SIP AI Park
- (참석자)

구분	소속	이름	직위
한국	국토연구원	이세원	부연구위원(PM)
		이병재	연구위원
		민혜경	연구원
	영국C&P	박찬호	대표
		서정기	이사
	엘티메트릭	강지훈	부장
중국	시안교통 리버풀대	이주현	교수
		김정우	교수
		정형철	교수
		Bing Chen	교수
		김창희	교수
		조형래	교수
		백민주	교수
		Sophie sturup	교수
		Kon Kim	교수
		김준식	교수
	SIPSG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Qian ChengYang	Vice President
		FengSai	Manager of Development Center
		Yang Mengqian	Integrated Solutions Specialist
		Liu HaiTao	Consulting Engineer

□ 주요 내용

- SIP AI Park(소주 공업원구 인공지능 산업원) 개요
 - 1994년 중국과 싱가포르가 공동으로 개발한 글로벌 하이테크 클러스터인 SIP(쑤저우 공업원구) 내 인공지능 혁신 기지로 쑤저우 국제과기원(SISPARK)(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캠퍼스(2000년 SIP Park 정식 출범)
 - (설립계기) 싱가포르 대통령이 상하이, 항저우 등 시찰 후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저렴하고 소주

지역의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개방적인 태도를 높이 평가하여 최종 결정

- 연구개발 중심의 시설뿐만 아니라 시제품 테스트, 첨단 제조가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면적 약 52만㎡에 달함
- (교육,인재) 구역 내 옥스퍼드, 카이스트 등 33개 대학 입주, 8만명 학생 재학중, 학교가 인근에 밀집해있어 상시 소통이 원활함
- (글로벌 기업과 중국 테크 공존) 마이크로소프트, 지벤스, 보쉬 등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화웨이, 알리바바 클라우드, 텐센트 클라우드, 바이두 등 중국 AI·빅데이터 기업 협력 중
- (주요 분야) 집적회로(IC) 설계 및 스마트센터, AI 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및 자율주행 기술, 빅데이터 및 디지털트윈 기반의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AI와 바이오 기술이 융합된 신산업 등 해당
- 도시 전체가 하나의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로 운영되며 화웨이 등과 협력하여 구축한 지능형 운영 센터(IOC)를 통해 AI, 사물인터넷, 디지털트윈 기술이 도시관리·교통·환경모니터링 등에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혁신모델 공간 조성

○ 기업유치 전략 및 인센티브 체계 조사

- (투자유치 패러다임 변화) 과거 정부 고위 관계자 네트워크 중심의 대기업 유치에 집중했으나 중국 자체 발전기여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규모는 작지만,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 및 스타트업 유치로 방향 선회
- (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 대기업은 대규모 토지 공급 위주로 소주 고위 공무원 직접 매칭 또는 중국 500대 기업의 별도 투자유치 전담 부서 운영, 소규모·스타트업은 현금 및 인프라 지원 선호 및 전문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 발굴 및 연결
- (기타 지원 정책) 20년 단위의 사무실 지원, 2년간 아파트 제공, 약 50만 위안의 자금 보조 및 최대 5억 위안대의 프로젝트 연계 지원
- (패널티 및 계약 조건) 약 6년전부터 AI 사업 집중 육성 시작하였으며 중소기업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반기업도 데이터센터 사용 가능하며; 최근 소규모 기업들의 개발 및 학습데이터 공급을 위해 200억 위안 추가 투자하여 신규 데이터센터 조성 중
- (거주민 대상 실증 및 규제 샌드박스) 과거 자율주행차는 실제 도로 운영이 불가능했으나 기술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폐쇄된 구역 내 먼저 안전하게 실증 기회 제공
- (성과 확인) 기업이 성과를 내면 전시관 전시 및 전시회에 성과 확인 가능하며 정부 프로젝트와 매칭 신청을 할수 있도록 지원
- (산업생태계 지속가능성 및 기술이전) 스타트업의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기술을 대기업에 매각·

이전하는 것에 대해 규제보다는 지원하거나 연결하고 있음

- (펀드 매칭 시스템) 공동 자금을 조성해 일괄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각 펀드의 전문 투자 영역에 맞춰 적합한 기업을 1:1로 매칭 및 추천 관리하는 개별 계약 방식 체결
- (대시민 서비스 한계) 일반 시민과의 접점 및 체감형 서비스 루트가 부족한 것은 소주의 약점이며 소주는 B2B(기업 간 거래/제조업 기반)에 강점이 있는 반면, 항저우는 B2C(시민 체감형/소비자 서비스)에 강점을 보이며 차별화됨
- (거버넌스 및 의사결정 구조) 중앙이 'AI+제조업'이라는 큰 틀의 발전 방향과 규정을 전달하며 세부적인 내부 규정 수립 및 변경은 현장 조직이 기업들의 니즈에 맞춰 자체적·탄력적으로 결정
- (유연한 정책 수정) 현장 운영 중 향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상급자 보고를 거쳐 즉각적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높은 자율성 확보
- (행정 면책의 한계) 주관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행정적 문제 발생 시, 의사결정권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권한은 없음(이런 결정은 관에서 주로 결정)



SIP AI Park